

사회

서민·극빈층 육아매는 불법 사채업자

최고 연 330% 고리 ... 9개업체 12명 검거 3억 빌린 채무자 자살하자 가족 괴롭히기도

#광주시 서구 풍암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채모(여·41)씨가 '사채의 늪'에 빠진 것은 지난해 9월. 불경기로 가게 형편이 어려워져 생활정보지를 보고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최씨는 하루에 10만원씩 90일 동안 원금의 3배에 달하는 900만원을 갚아야만 했다.

#공사장에서 합바식당을 운영하던 광주시 광산구의 전모(58)씨는 지난해 사채업자 이모(57)씨로부터 3억원을 빌려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그해 7월 자살했다. 전씨는 원금과 이자 등 1억9000여만 원을 갚았지만 잔여 대출금 1억8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매일 540만 원에

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전씨의 아내를 찾아가 변제를 요구하며 괴롭히기까지 했다.

#이모(25)씨는 최근 생활정보지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대출중개자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가 개피탈업체 등 3곳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1600만원이 대출되는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정부가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서면서 피해자 신고와 상담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대출업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틀만에 32건 접수=22일 전남

수사팀이 설치된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단속이 시작된 지난 18일 이후 이를 동안 신고된 건수는 각각 14건, 18건으로 수사팀이 설치되기 전보다 3배 이상 신고가 늘었다. 경찰이 24시간 운영되는 수사팀을 설치하자마자 상담 및 신고 전화가 밀려들고 있는 것이다.

◇사채에 우는 서민들=광주서부경찰은 22일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최고 연 330.9%의 고리를 뜯은 무등록 대부업자 김모(31)씨 등 9개 불법 대부업체 12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검야 조사를 하고 있다.

김씨는 올해 1월 광주시 북구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정모(여·55)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줘 뒤 120일 동안 매일 3만원씩 받는 등 지난 3월까지 모두 57명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연 25%의 이자를 받아 채권 혐의다. 이들이 영세상인과 서민 54

명을 상대로 갚긴 금액만 3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대부업체 광주 진출=이날 서부경찰이 검거한 대부업자 12명 가운데 3개 업체 5명은 대구 지역 조직들로 조사됐다. 최근 대구 지역 불법 대부업자들이 2~5명씩 조직을 꾸려 광주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주의 '사채'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광주업체와 똑같이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 전단을 돌리거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지역서민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사채 신고 국번 없이 1332=신고는 국번 없이 1332번이나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

/임동철기자 exian@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서 동일범 추정 강·절도 잇따라 발생

22일 새벽 4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모 병원 앞길에서 스텐다 차량을 몰던 피의인 박모(여·32)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뒷좌석에 올라 타 흉기로 박씨를 위협해 현금 20만원과 핸드백 등을 빼앗아 도주하는 등 강·절도 사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CCTV에 찍힌 범인의 사진을 토대로 공개수배했다.

또 경찰은 이 범인이 지난 17일 광산구에서 발생한 부녀자 강도사건의 용의자와도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탈북자 북송 반대” 지난 21일 오후 광주역 앞 광장에서 열린 ‘탈북자 북송반대 및 북한 인권 증진대회’.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광주·전남지역 안보단체협의회 회원, 전남대 학생,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비를 맞으며 탈북자 북송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보안 때문?... 문턱 높아진 광주경찰청

“소통하는 경찰이 되겠다더니 민원인마저 출입이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이 경찰의 열린 자세인가요?” 시민 박모(38)씨는 최근 광주지방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했다가 예전과 다른 출입시스템에 불편을 느꼈다. 가뜰이나 도심과 거리가 멀어 찾기도 힘든 이곳에 난데없이 출입구부터 자동차 차단기가 설치되거나 민원실은 신분증과 교원한 보안

카드가 없으면 열리지도 않았다. 지난 단담에는 경비소에 방문 목적만 알리면 출입이 가능했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9500만원을 들여 사무동과 민원동, 지하주차장 통로 등 출입문 12곳에 지문이나 보안카드를 접촉해야 문이 열리는 자동문과 원격출입문 개폐기를 도입했다. 입구에는 차량 차단기까지 설치했다.

9500만원 들여 시스템 강화
민원인 보안카드 사용 불편

출입보안시스템 강화는 지난해 말 대전지방경찰청의 민간인 무단 침입 사건이나 피의자 무단도주 등 일련의 피해대응 차원에서 경찰청 지시로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한 탓에 경찰청 문턱만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내부에서도 불멘소리가 나온다. 한 직원은 “출·퇴근시 문에

박주선 의원 검찰 소환 조사

동구 불법 선거 관련
전직 동장 투신사건으로 불거진 동구 불법선거와 관련 지난 4·11 총선 동구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박주선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광주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불법 사조직 설치 및 경선운동 방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조직 운영비로 쓰인 5900만원의 출처, 화순군 한 식당에서 열린 동장모



유령 기계 담보 대출 사례금 2억 챙겨

신협 간부 들 징역형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최근 현공기 등 허위 건설기계 서류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뇌물을 받았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한 신협 직원 박모(34)씨와 송모(42)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6월에 벌금 5200만원, 징역 5년에 벌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버려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받은 뇌물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을

내연녀 살해 50대 영장

안도경찰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김모(58·안도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시험거부 1인 시위 교사 감봉 2개월 징계 취소해야”

광주고법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험 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벌인 목포의 한 고교 교사와 고모(51)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와 함께 징계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징계 사유가 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일제고사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 이전에 1인 피켓시위를 벌인 점, 해당 고등학교 학생 대부분이 일제고사에 응한 점 등과 유사 징계 사례와 비교했을 때 감봉 2개월 처분은 과중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

졸업앨범 입학 '단돈 1원' 제시

광주지역 각 학교의 졸업앨범 입학 경향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업체들이 광주시교육청의 ‘최저가 입학 방식’에 항의해 ‘단돈 1원’을 입학가로 제시해 논란.

○2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 서구 모 초등학교와 북구 모 중학교 등 4개 학교졸업앨범 제작업체 입학 과정에서 7개의 사진관이 1부당 입학 가격으로 1원을 써냈다는 것.

○일선학교에서는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 경쟁 입학’ 방식에 따라 1원 이하를 써낸 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해야하고, 선정된 업체로부터 저가앨범을 납품 받아야 할 판.

○한 학교 관계자는 “교육청 지침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원을 제시한 업체 중 1곳을 선정해야 한다”며 “질이 떨어지는 앨범을 제작해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민국입니다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점망

서울 삼일로점(합동점) 상일로 입구: 022276-0687-9 강남점(당남고숙터이빌) 열: 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 열: 02733-0220 송파점(세종역 2번 출구) 02419-3388 경기 인천점(구 사민회관) 열: 032421-2288 부평점(부평역) 열: 032617-5110 수원점(남문 열) 031246-5110 의정부점(의정부역) 열: 031821-6655 안양점(역삼로2001) 서울 열: 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열) 031658-5110 용인점(용인역) 열: 031336-1090 오산점(오산역) 열: 032329-4400 남양주점(한해호점) 열: 0708229-9903 부산 서면점(서면역) 열: 051818-8800 서면점(서면역) 열: 051256-7200 울산 울주점(울주역) 열: 05228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열: 055297-6080 진주점(진주역) 열: 055745-9870 대구 동점(동대구역) 열: 053425-4440 삼척점(삼척역) 열: 053425-7575 경북 포항점(포항역) 열: 054244-5110 안동점(구 도동 열) 열: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열: 062651-4477 전남 순천점(순천역) 열: 061752-8845 전북 전주점(전주역) 열: 063225-5728 호남점(구 사정동 열) 열: 063446-0198 익산점(익산역) 열: 063638-5000 남원점(남원역) 열: 062254-5110 대전 (충청문화센터) 열: 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열: 042225-6900 충청 천안점(천안역) 열: 041553-2988 광주점(광주역) 열: 041852-5110 충북 청주점(청주역) 열: 043222-1177-6 충주점(충주역) 열: 043632-1414 강원 강릉점(강릉역) 열: 033647-0588 춘천점(춘천역) 열: 033263-5110 제주 제주점(제주역) 열: 064753-4558

세계적 권위의 인증! 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인증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기인증 ISO 13485인증 유럽공통체 CE마크 인증 의료기기 제조업체 GMP인증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부 문의전화 021538-9388